



정세균



김두관



민주당 대선후보

광주 합동토론회



손학규



문재인

# “광주 잡아야 대권 보인다”

## 민주 대선 경선 주자들 일제히 광주로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3일 광주·전남 순회 경선 승리를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광주·전남지역 선거인단은 14만 여명으로 현재까지 경선이 진행된 지역 선거인단 중 최대 규모다. 이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모바일투표와 순회투표가 각각 4~5일, 6일 진행된다.

특히 광주·전남은 민주당 본산이어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나아가 이번 광주·전남 경선은 결선투표 실시 여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후보들은 이날 일제히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문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총장로의 김 선생님께’라는 글에서 “저 문재인이 여러 가지로 미흡하다는 사실 잘 안다. 아직은 김대중 노무현을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며 “문재인의 어깨 위에 광주정신을 놓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오후에는 별도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광주MBC 방송 토론회 준비에 매진했다. 문 후보는 현재 누적득표율은 46.15%이지만 광주·전남 결과에 따라 과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누적득표율 2위인 손학규 후보는 광주·전남에 모든 것을 걸었다. 손 후보는 이날 아침 광주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친노 패권 세력에 불모 잡혀서는 안 된다고 느낄 분들이 광주·전남 분들”이라며 문 후보와 각을 세웠다.

손 후보는 또 광주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친노 패권세력 대표의 어설플 대세론과 ‘박정희-노무현 대결구도’로는 정권교체가 어렵다”며 “광주·전남에서 역전의 드

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친노 당권과는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밀실 공천, 나눠먹기 공천으로 다 이긴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고 답답정치, 패거리 정치로 당을 망치고 말았다”며 친노 당권파에 대한 광주·전남의 심판을 주장했다.

3위인 김두관 후보도 광주·전남 경선이 2위로 뛰어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고비라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계승 발전시키고 개혁 진보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며 “수십 년간 낙후된 호남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내부의 혼란과 무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의 지지를 잃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으며 대북송금 특검 수용, 분당, 대연정 추진, 신자유주의 추종, 한미 FTA 졸속타결, 아파트 분양권 공개 무산 등 잘못이 많다”며 문재인 후보를 겨냥했다.

정세균 후보는 유일한 호남주자인 점을 부각하면서 광주·전남에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각오다. 정 후보를 지지하는 김진표·김성곤·전병헌 등 국회의원 9명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이 민주당 경선의 역동성을 살려줘야 한다”며 “민주당을 구할 정세균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 의원은 또 “경선의 공정성은 훼손됐고 이로 인한 후유증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며 “어설플 대세론을 앞세운 동원 경쟁으로 갈등은 사라지고 국민의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親盧 패권주의·불공정 경선 ‘난타전’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4명은 3일 광주에서 연 TV 합동토론회에서 국가운영 전략과 정책 등을 제시하며 광주·전남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각 후보들은 특히 당내 계파 간 통합의 촉·대북송금특검 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후보들은 또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와 경선을 불공정성을 둘러싼 난타전을 이어갔다.

◇친노 패권주의 공세=예상대로 경선 1위인 문재인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았다. 김두관·정세균 후보는 2위 손학규 후보를 상대로도 공세를 가했다. 가장 뜨거운 공방 주제는 경선 전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던 친노 패권주의였다.

손 후보는 친노 패권세력이 경선을 망치고 있다며 문 후보를 공격했고, 문 후보는 경선관을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손 후보가 주도권토론 시간에 자신에게만 질문한다고 불만을 표시할 정도로 신경전이 달아올랐다.

손 후보는 “정권교체의 희망이 가물거리고 있다. 민주당 경선이 실종되고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체 모를 무더기 모바일세력의 작전 속에 민심과 당심은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다. 친노 패권세력의 모바일작전에서 민주주의를 구출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의원투표·투표소투표·모바일투표가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국민이 정말로 경악하고 있다. 연설도 하기 전에 투표가 다 끝나는 것을 어찌 설명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모바일투표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절실히 얘기했지만 당권파는 듣지 않았다”고 꼬아붙였다.

문 후보는 “지금까지 6개 지역경선에서 모두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3일 광주 MBC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앞서 4명의 후보들이 손을 맞잡고 미소를 짓고 있다. 왼쪽부터 정세균·김두관·손학규·문재인 후보.(기호 순)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문재인 “국민경선 흔들지 말고 단합해 큰 힘 모으자”  
 손학규 “문후보는 참여정부 대북송금 특검 사과하라”  
 김두관 “文 신지역주의 조장·孫 친재벌 행보” 비판  
 정세균 “후보 편가르기 심해 어떻게 아우르려하느냐”

그것이 전부 친노패권주의에 의해 지지했다는 것인지.. 이는 국민의 성의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며 “경선을 흔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합해 더 큰 힘을 모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또 “자꾸 우리가 (국민 경선에) 침 뱉는 것은 국민 성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며 “국민경선은 민심에 좌우되지 조지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데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대북특검 공방전=문 후보와 손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을 놓고서도 공방을 벌였다. 문 후보는 손 후보가 “문 후보는 다른 후보가

사과를 요구했을 때 사과할 수 없다고 했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그 일로 호남에 상처준 것은 사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 후보는 문 후보가 과거 한 언론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한 일, 김 전 대통령이 퇴임 열흘을 앞두고 특검을 중단해달라는 답변을 썼던 일을 거론한 뒤 “지금도 문 후보는 변명하고 있다”고 꼬아붙였다.

문 후보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제대로 발전시킨 것이 참여정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오호러 그때마다 발목 잡고 비난해온 것이 손 후보가 몸담았던 한나라당”이라고 꼬아붙였다.

◇신지역주의·정체성 시비=김 후보는 문-손 두 후보를 향해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문 후보는 2006년 (지방선거 때) 부산 시민이 노무현정권을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고 해서 호남에 충격을 줬다”며 “이런 발언이 지역주의를 조장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문 후보는 “부산·경남의 지역주의를 비판한 것”이라면서 “선거란 예

민한 시기에 다른 지역 분에게 상처 주고 우리 후보들에게 부담을 줬다면 사과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손 후보를 향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구속을 반대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공근로자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고 현대차 노조를 귀족노조로 비판했다”며 정체성을 문제삼았다.

손 후보는 “정 회장 구속을 반대한 것은 불구속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고, 당시 현대차가 미국과 슬로바키아에 공장을 증설하는데 지장 받았던 때가 때문”이라며 “현대차 노조에는 미안하나 더 어려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대변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손 후보는 그동안 재벌주의 행보를 해 왔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며 “노선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손 후보는 “바뀐 것 없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기업에 때려잡자는 게 아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 침해하고 중소기업 기술 빼어가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편 가르기 공방=정 후보와 손 후보 간 편 가르기 공방전도 펼쳐졌다. 정 후보는 “손 후보가 편 가르기를 심하게 안 했는데, 지금은 심하다. 이런 편 가르기로 후보가 선출되면 손 후보라도 아우를 수 있겠느냐”라고 손 후보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손 후보는 “유신체제의 구조가 국 민총화였는데, 문 후보가 기득권정치, 낡은 정치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고, 문 후보도 “일부 후보들이 합동연설회와 TV토론회를 무산시키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부터 선거인단 참여가 줄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지역 현안사업 예산반영에 최선”

새누리당 광주시당위원장·당원협의회장 기자회견

새누리당 유수택 광주시당위원장과 광주지역 7개 당원협의회장은 3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지역 현안 사업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 중심의 정치를 펼쳐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각종 현안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선입견을 버리고 좀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 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 후보의 광주 방문 일정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방문일정은 잡혀 있지 않지만, 박 후보가 광주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 중인 만큼 조만간 (박 후보가) 광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누리당 광주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광주지역 공약집을 전달했다”며 “(아직 비공식적이지만) 김종민 국민행복특위 위원장에게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에서 제 7기 CEO 명품 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교육프로그램

교육기관 및 장소	개강일	과정	교육일정	정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9. 15	중소기업사장학	토요일(10회)	9:00-17:00	40명

◆ 교육과정

- 기업가 정신 및 리더십(커뮤니케이션, 동기부여, 갈등관리 등), CEO 핵심역량 등

◆ 참가자 특전

- 교육기간 및 수료 후 세미나, 특별 심화과정 무료초청
- 해의 선진기업 벤치마킹 연수 지원

◆ 교육신청

- 대상 : 중소기업 CEO 또는 임원(가업승계자 포함)
- 교육비용 : 150만원 (※ 과정의 70%이상 참석 시 수료 및 환급)
- 환급기준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 100만원 환급,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기업 - 50만원 환급

◆ 신청서 다운로드 <http://www.sbcceo.or.kr>

참가문의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456번길 40(장동동 125-2) / 062-250-3035-6 / Fax : 062-250-3077

중소기업청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